

현대미포조선, KCC 지분 35만주 취득

현대미포조선은 1월31일 이사회에서 KCC 보통주 35만6000주를 취득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.

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현대미포조선의 KCC 보유지분은 39만7000주, 지분율은 3.77%로 상승하게 된다.

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“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건조선박 증가에 따른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지분 취득목적”이라고 설명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종수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2/02>